

[문제]

1. (가)를 참고하여 ‘무지의 무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무지한 자에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왜 무지한 자가 술 취한 자에 비유될 만한지 설명하고,
2. 무지한 자의 경험 세계와 앎에 이른 자의 경험 세계의 간극을 (나)의 ‘돼지’와 ‘소크라테스’의 대비를 활용하여 설명한 후,
3. (다)의 안희의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추론해보시오. (1,200자, 100점)

(가)

한 친구가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서 내게 “너 이 영화 안 보면 후회해.”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는 데 어려울 것은 없으나, 사실 이 말에는, 모순까지는 아니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점이 들어 있다. 내가 이 영화를 줄곧 보지 않는다면 나는 친구가 받은 감동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후회할 일도 없을 것이다. 모르면 후회할 일도 없다. 따라서 친구의 이 말이 흔히 하는 말이고 오해 없이 통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려면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야 할 것 같다: “너 이 영화 안 보면 후회도 못 해.”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조차 알 길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고르기아스는 가르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의 제자 메논은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에서 자신과 함께 덕에 대해 탐구해 가기를 원하는 소크라테스에게,

“소크라테스여. 당신께서 덕이 무엇인지를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탐구하실 겁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내세우고서 탐구하실 겁니까? 혹시 당신이 그것과 정확히 딱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알지 못했던 바로 그것인지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메논의 논증이, 자신이 그 타당성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설득력 있는 논증임을 인정한다. 배움이란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모른다면, 비록 그것을 발견해도 그것이 우리가 몰랐던 바로 그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탐구는 전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일 수는 없고,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는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탐구가 가능하려면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앎”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지의 무지에 대한 경계는 노자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도덕경»에서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이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 성인이 이러한 병이 없는 것은 그가 이 병을 병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래서 성인은 병이 없다. (知不知, 上矣. 不知不知, 病矣. 是以圣人知之不病, 以其病病, 是以不病.)”

그러나, 무지의 무지에 대한 경계를 가장 서늘하게 지적한 사람은 주희였다. 주희는 그의 «근사록»에서 정이천 선생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다.

“도를 모르는 자는 술취한 사람과 같다. 술에 취해 있을 때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술에서 깨고 난 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아직 학문을 알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아무런 결함도 없다고 여기지만, 학문을 배우고 나서 예전의 이런 생각을 돌이켜보면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 (未知道者如醉人，方其醉時，無所不至，及其醒也，莫不愧恥。人之未知學者，自視以為無缺，及既知學，反思前日所為，則駭且懼矣.)”

전적으로 무지한 것에 대하여 그 무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무지의 각성이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가장 깊이 느꼈던 사람은 아마도 소크라테스였을 것이다. 그를 가리켜 델피의 신탁이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자”라고 하였다고 전해들은 그는 왜 자기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자인지를 델피의 신탁에 물었고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은 아는 자”라는 답을 듣는다. 그리고 아테네의 지자(知者)들을 찾아 대화하면서 그는 델피가 옳았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

무지함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니만치 무지를 각성하고 앞에 이르는 길이 쉬울 리 없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앞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이전의 무지가 어떠했나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무지의 무지에서 나온 이전의 방종한 생각들을 부끄러워하게 되며, 더 나아가 새로이 도달한 앞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각성된 앞에 도달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앞이 주는 즐거움을 상상할 수도 없을 텐데, 이것은 마치 돼지가 셰익스피어를 읽거나 아인슈타인을 이해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상상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리주의»의 유명한 구절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만약 어떤 두 가지 쾌락을 능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중 하나의 쾌락이 다른 쾌락에 비하여 항상 훨씬 적은 양으로 향유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자의 쾌락을 거의 대부분 선호한다면, 그렇게 선호된 쾌락에 질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 우월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적 고찰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쾌락을 능히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최상의 능력을 활용하는 존재 방식을 확실히 선호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짐승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완전히 허용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 더 낮은 단계의 동물로 변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교양인도 바보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무지한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향유의 능력이 저급한 존재들은 자신의 욕구가 완전히 만족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반면에 고급한 향유 능력을 가진 존재들은 항상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 불완전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그러한 불완전함을 이유로 그러한 불완전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하는 돼지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고,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않는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다)

내가 더 높은 경지의 앞을 가끔이라도, 불완전하게라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 앞을 누리는 것 이외에 다른 일들은 이제 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들이 된다. 이러한 경지를 안회가 보여준다. «논어»에서 공자는 그의 제자 안회에 대하여 이렇게 감탄한다.

“현명하도다, 회야는! 한 주먹의 거친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 배를 채우고 누추한 골목에 지낸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진대, 회야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현명하도다, 회야는!”(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回也 不改其樂。賢哉，回也!)